

## 1. 서언

조선왕실의 의례는 국가 의례이기도 하다. 조선의 왕과 왕비는 백성에게는 부모로 인식되었다. 국상이 나면 온 나라가 그 슬픔을 함께하였다. 그러나 왕실 친족과 인척, 관료 그리고 사서인(士庶人) 등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슬픔을 나타내는 정도가 달랐다. 관료와 관속 그리고 일반 백성 등은 장례 준비, 왕릉 조성, 제사 준비 등을 통해서 국장에 참여하였다.

왕의 생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조선은 국상이 난 후에 임시 관서인 도감을 설치하여 국장을 행하였다. 왕실 의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과 물력이 동원되는 것은 흥례인 국장이었다. 국장과 관련되어 임시로 설치되는 도감은 국장이 시작되어 발인할 때까지 각종 의례를 준비하고 물품을 조성하는 국장도감, 발인까지 설치된 빈전(殯殿), 장례 후 혼전(魂殿)에서의 의례를 준비하고, 물품을 조성 조달하는 빈전도감과 혼전도감, 왕릉을 조성하는 산릉도감 등이 있다.

관료와 관속 그리고 일반백성 등이 국장과 관련되어 설치되는 도감에 참여함으로써 국장의 애통함이 왕실 친족의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확산되었다. 본고에서는 국장이 나서 장례를 치르고 3년 상에 치르는 과정에서 설치되는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 등 네 종류의 도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인적 구성원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애통의 공공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국장에 대한 자료는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조의 국장’으로 한정하여 사례연구를 할 것이다. 영조는 『국조오례의』의 흥례를 조선 후기 사회에 맞게 재정리하여서 『상례보편』을 편찬하였다. 영조의 국장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례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사도감(四都監)의 인적 구성원을 살필 것이다. 사도감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승 중에서 차임되는 총호사를 중심으로 각 도감의 제조, 실무를 관장하는 도청·낭청,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조성하는 일을 감독하는 감조관과 공장(工匠), 시위 담당 군인, 여연(輿輦)을 지는 담지군, 산릉 조성에 동원되는 인력 등 다양하였다. 이들의 규모와 그들의 차출 방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국장을 치르기 위한 인력 조달 방법과 그 규모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국장을 위한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관 각사 그리고 지방 관서에서 인력과 물력을 조달해야 한다. 각 도감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관청들이 협력하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 활용할 주된 자료는 영조국장과 관련된 도감의 의례를 기본 자료로 하고, 국장 관련 등록자료와 상례보편 그리고 연대기 자료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 2. 영조의 죽음과 사도감(四都監)의 설치

1776년(영조 52)년 3월 5일 영조는 경희궁의 집경당에서 사망하였다.<sup>1</sup> 영조는 3월 4일 병세가 악화되었다.<sup>2</sup> 4일 날이 저문 뒤부터 영조의 어지러운 증세가 심해져서, 술시(戌

<sup>1</sup> 『영조실록』 권127, 영조 52년 3월 5일 병자.

<sup>2</sup> 『승정원일기』 77책, 영조 52년 3월 4일 을해.

영조의 병이 악화된 일자가 『승정원일기』와 『영조실록』이 다르다. 『승정원일기』에는 3월 4일 병이 악화되어 회복되지 못해서 국상의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이와 같은 일들

時)에 약방 도제조 김상복(金相福)·제조 박상덕(朴相德)·부제조 서유린(徐有隣)이 의관 오도형(吳道炯)·정윤겸(鄭允儉)·유광익(柳光翼)·서명위(徐命緯) 등을 데리고 영조를 뵈었다. 의관의 진찰이 끝나고, 탕약과 좁쌀 미음을 드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왕세손은 궁관, 승지 그리고 시임·원임대신,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정후겸(鄭厚謙)·김효대(金孝大)·김한기(金漢耆)·김한로(金漢老) 등을 입시하게 하였다.

대신들이 입시하자, 왕세손은 대신과 의관에게 영조를 진찰하게 하였다. 영조의 병환이 회복될 기미가 없음을 확인하고,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은 종사와 산천에 제사를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만약을 대비해서 궁성의 호위를 규례대로 시행하게 하고, 영조의 유교(遺敎)를 작성할 준비를 하였다. 도승지 서유린이 대보(大寶)를 왕세손에게 전하라는 유교를 받아 적었다. 영의정 김상철은 도승지 서유린에게 영조의 유교를 반포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은 왕세손에게 영조의 사망을 확인하는 속광(續曠)을 청하였다. 왕세손은 영조의 사망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지만, 거둬진 영의정의 청에 따라 속광이 행해졌다. 속광의 집사는 금성위 박명원·창성위 황인점·공조판서 김한기·부사직 정후겸·병조참의 김한로가 맡았다. 즉 영조의 사위, 손주 그리고 외척 등이 직접 그의 죽음을 확인하였다. 이때가 3월 5일 오전 5시 45분이었다.

이날 바로 국장을 준비하고 운영할 도감들이 설치되었다. 습(襲)·염(斂)·성빈(成殯)·성복(成服) 등의 일을 맡아 보는 빈전도감, 혼전(魂殿)·배비(排備) 등의 일을 맡아보는 혼전도감, 재궁(梓宮)·거여(車輦)·책보(冊寶)·복완(服玩)·능지(陵誌)·명기(明器)·길흉의장(吉凶儀仗)·상유(喪帷)·포연(鋪筵)·제기(祭器)·제전(祭奠)·반우(返虞) 등의 일을 맡아보는 국장도감, 현궁(玄宮)과 정자각(丁字閣)·재방(齋坊) 영조(營造) 등의 일을 맡아보는 산릉도감 등 사도감(四都監)이 그것이다.<sup>3</sup>

『국조오례의』 흥례 계령(戒令)에 도감 구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도감의 도제조는 좌의정이 맡으며, 총호사(總護使)라 칭하였다. 빈전도감은 제조 3원, 당하관 6원으로 구성하였다. 제조와 당하관 중에는 반드시 예조의 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제조에는 예조판서가, 당하관에는 예조 정랑·좌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빈전도감의 역할이 예제(禮制)에 밝아야 하기 때문에 예조 관원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혼전도감은 제조 3원, 당하관 낭청 6명으로 구성하였다. 혼전도감을 반우일에서 종묘부묘까지 혼전의 일을 관장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빈전·혼전도감이라 하여 빈전도감과 함께 운영되기도 하였다.

국장도감은 제조 3원, 당하관 8원으로 구성되었다. 제조는 호조판서·예조판서·선공감 제조 등이 맡아야 하며, 당하관 8원 중 4명은 반드시 예조·공조의 정랑·좌랑 그리고 제용감·선공감 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장도감 역시 예조에서 국장 절차에 대한 일을 주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국장도감은 국장에 사용될 기물 등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공조·선공감의 역할도 클 수 밖에는 없다. 또한 기물을 만드는 비용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호조가 반드시 참여해야 했다.

산릉도감은 제조 3원, 당하관 10원으로 구성하였다. 산릉도감은 왕릉을 조성하는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에 공조판서·선공감 제조가 들어가야 한다. 당하관은 10원 가운데 2원은 문신과 선공감 관원이 포함되어야 했다. 유일하게 예조의 관원이 필수적이지 않은 도감은 산릉도감이었다.

이 3월 3일 기사에 기록되어 있고, 3월 4일 기록이 누락된 채로 3월 5일 영조가 승하한 것으로 되어있다.

<sup>3</sup> 『국조오례의』(장서각 K2-2114) 권7, 흥례, 계령.

영조의 국장을 총괄 지휘하였던 총호사는 여러 차례 교체되었다. 영조가 승하한 바로 그날 당시 좌의정이었던 신회(申晦)가 총호사에 제수되었으나,<sup>4</sup> 제수된 지 보름 만에 좌의정에서 파직되어 총호사 자리도 내놓게 되었다.

왕세손은 3월 10일 경희궁 승정문에서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영조의 유교에 따라 장헌세자를 진종으로 추송할 계획임을 밝혔다.<sup>5</sup> 그리고 생부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임오화변을 일으켰던 이들에 대한 처벌을 단행하였다. 좌의정이었던 신회는 도감의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정후겸(鄭厚謙)과 가깝지만 감여학(堪輿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지관(相地官)으로 추천했다는 명목으로 좌의정에서 파직되었다.<sup>6</sup> 그는 신만(申晩)·신광수(申光粹) 부자와 더불어 임오화변을 일으킨 주요 인물이었다.<sup>7</sup> 또한 신회·신광수 숙질은 정후겸과도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sup>8</sup> 신회의 파직 사유가 표면적으로는 도감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그가 임오화변의 주동자이며, 왕세손의 대리청정을 막았던 정후겸과도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었다.

영의정 김상철은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전례에 의거하여 입직을 거두고 물러가려 하였으나, 정조는 그를 계속 입직하게 하였다. 3월 14일 김상철은 입직을 거두고 물러갔다. 정조는 신회를 파직시킨 3월 19일 복상(卜相)을 하였는데, 영의정에 김양택(金陽澤), 좌의정에 김상철을 제수하였다.<sup>9</sup> 좌의정 김상철은 총호사를 맡게 되었으나, 바로 그 다음날 사직을 청하자, 정조는 우선 영의정 김양택에게 총호사를 맡겼다. 김상철이 좌의정을 사임하게 된 것은 김약행(金若行)이 그를 논박하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이었다.

김약행은 김상철 역시 소론 대신으로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최석항(崔錫恒) 등과 같은 역당이라고 성토했다.<sup>10</sup>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최석항(崔錫恒) 소론 준론 대신들은 영조대 세손의 대리청정을 막았던 정후겸을 지지하였는데, 김상철 역시 소론이기 때문이었다. 김상철도 의리를 내세워 사임을 원하자, 정조는 그의 사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조는 영조 대리리 준수를 소론뿐만 아니라 노론에도 적용하여 김약행을 평생 금고하였다.

<표 1> 인조~영조 국장 총호사<sup>11</sup>

국왕	총호사 인원	비고
인조	4명	좌의정 이경석(5.8~8.8) 영의정 제수로 교체 우의정 정태화(8.8~8.9) 어머니 병으로 사임 영의정 이경석(8.9~9.2) 조익이 좌의정에 제수됨으로 사임 좌의정 조 익(9.2~)
효종	1명	좌의정 심지원
현종	1명	좌의정 김수항

<sup>4</sup> 『영조실록』 권127, 영조 52년 3월 5일 병자.

<sup>5</sup>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10일 신사.

<sup>6</sup>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19일 경인.

<sup>7</sup>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외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년, 114쪽.

<sup>8</sup>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16일 병술.

<sup>9</sup> 주6 참조.

<sup>10</sup>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4월 1일 임인.

<sup>11</sup> 인조~영조 국장 총호사는 규장각 소장 『국장도감의궤의』에 실린 이조별단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숙종	1명	우의정 이건명
경종	1명	좌의정 이광좌
영조	6명	좌의정 신 회(3.5~3.19) 좌의정 파직 좌의정 김상철(3.19~3.20) 사임 영의정 김양택(3.20~4.22) 김상철이 좌의정에 제수되므로 사임 좌의정 김상철(4.22~6.25) 좌의정 파직 우의정 정존겸(6.26~7.5) 김상철이 좌의정에 제수됨으로 사임 좌의정 김상철(7.5~7.28)

정조는 4월 1일 김상철을 다시 좌의정에 제수하였다. 4월 22일 총호사의 일을 수행하던 영의정 김양택은 차자를 올려서 소임을 면해주기를 청하자, 좌의정 김상철에게 다시 총호사의 직임이 주어졌다.<sup>12</sup> 정조는 자신이 왕세손이었을 당시 그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그의 지지세력이었던 홍국영(洪國榮)을 제거하려 하였으며, 혜빈 홍씨와 세자빈을 쫓아내겠다고 자신을 협박하는 등의 일을 저지른 홍인한(洪麟漢)·정후겸 등을 불충으로 단죄하였다.<sup>13</sup> 이들을 친국하였던 정조는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대신들을 삭직하거나 파직하였는데, 이때 김상철이 다시 파직되었다.<sup>14</sup> 그러나 정조는 다시 김상철을 다시 좌의정으로 제수하고 총호사로 삼았다.<sup>15</sup>

인조에서 영조에 이르기까지 국장 총호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국장을 주관하는 총호사는 숙종과 경종 국장을 제외하고는 좌의정이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장이 진행되는 약 5개월 동안 총호사가 여러 번 교체된 경우는 인조와 영조 국장이었다. 인조 국장의 경우는 최초 총호사였던 이경석이 영의정에 제수되고, 좌의정 김상현이 말미를 받아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우의정인 정태화가 대행하였다.<sup>16</sup> 그러나 정태화는 어머니의 병으로 사임을 청하여, 어쩔 수 없이 영의정인 이경석이 다시 총호사를 맡았다. 그러나 조익(趙翼)이 좌의정에 제수됨으로 총호사 직임을 맡게 되었다. 인조 국장 총호사 교체 이유는 좌의정이었던 이경석이 영의정에 제수되면서 총호사 직임을 맡아야 할 관원 수급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조 국장 총호사는 단순한 의정(議政) 수급 문제로 잦은 교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임오화변의 주동자와 홍인한·정후겸 등 정조의 반대세력을 불충으로 단정짓고 처단하는 과정에서 총호사가 6번 교체되는 r1현상을 보였던 것이었다. 영조의 험난했던 정치행로가 그의 국장 총호사 직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3. 국장도감의 기능과 역할

영조가 사망한 3월 5일 당일 국장도감의 구성원이 정해졌다. 국장도감의 구성원은 제조 3원, 도청 2원, 낭청 6원 등 총 11명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조오례의』 흥례 계령조에서 국장도감 제조는 예조판서·호조판서·선공감 제조가 맡고, 당하관은 예조·공조의 낭관과 선공감·제용감 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조 국장도감의례』의 이조별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up>12</sup>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4월 22일 계해.

<sup>13</sup> 최성환, 앞의 책, 123쪽.

<sup>14</sup>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6월 25일 갑자.

<sup>15</sup>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7월 5일 갑술.

<sup>16</sup>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8월 8일 을미.

<표 2> 영조 국장도감 구성원

직임	관직	이름	근무일	근무상황	비고
제조	호조판서	채제공	3.5~7.28		
	병조판서	이휘지	3.5~7.28		
	행부사직	윤동섭	3.5~3.10	산릉당상과 교체	
	공조판서	김종정	3.10~3.27 4.14~6.6	파직 상을 당함	
	행부사직	정홍순	3.28~4.3	삭직	
	행사직	조명정	4.3~4.17 6.6~6.22	파직 유배	
	예조판서	서명선	6.26~7.6	감하	
	행사직	한광희	7.6~7.11	산릉 당상과 바꿈	
	이조판서	이중호	7.11~7.28		
도청	홍문 부응교	서유방	3.5~7.28		
	시강원 필선	유의양	3.5~6.19	고신을 빼앗김	
낭청	호조 정랑	김기후	3.5~6.9	태거	3방 소임
	예조 정랑	이석제	3.5~7.28		2방 소임
	병조 정랑	박도상	3.5~3.25	병으로 교체	
	형조 정랑	송지경	3.5~6.20	외임	1방 소임
	공조 좌랑	정지검	3.5~6.12	감하	3방 소임
	한성부 주부	이 채	3.5~7.10	고신을 빼앗김	1방 소임
	부사과	이득로	3.26~7.28		2방소임
	형조 정랑	성덕우	6.9~7.28		3방 소임
	제용감 판관	김재균	6.14~7.1	외임	
	한성부 판관	이헌대	7.11~7.28		1방소임
	공조 좌랑	구 응	7.11~7.28		1방소임
	상의원 별제	정창기	7.11~7.28		3방 소임

국장도감의 구성원은 법제적으로는 제조 3원을 비롯하여 당하관을 포함한 11명이지만, 위의 표를 보면 총 23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일반적으로 도감의 구성원은 인사 이동, 혹은 도감 직임을 감해 주는 경우, 개인적으로 상을 당했다거나 병으로 직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도감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의 이유로 도감 직임이 교체되었다.

위의 표에서 파직·유배·고신박탈·태거 등의 이유로 교체된 국장도감의 관원은 9명으로 39%에 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이채(李采)뿐이었다. 이채는 여사군(興士軍)을 점고하기 위해서 모화관에 갔다가 사소한 일로 점고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여사군들은 종일토록 대기하였는데도 점고를 받지 못하여 호소하였기 때문에 이채의 고신을 빼앗겼다.<sup>17</sup> 이채 대신 국장도감 낭청에 차임된 사람은

<sup>17</sup> 『승정원일기』 77책, 정조 즉위년 7월 6일 을해.

한성부 판관 이헌태(李憲泰)이었다.<sup>18</sup> 이채를 제외한 8명은 충호사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된 경우이었다. 제조 3원 중 공조판서 김종정(金鍾正)은 정조에게 정후겸과 결탁하였던 윤양후(尹養厚)의 유배지를 좋은 곳으로 정하였다는 혐의로 파직되었다.<sup>19</sup> 정홍순(鄭弘淳)·조명정(趙明鼎) 등 역시 정후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혐의로 파직되거나 유배되었다.

이렇듯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임오화변 문제 처결과 정후겸 세력을 내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흔들리는 왕권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영조의 국장이 진행되는 시기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여파가 도감 구성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된 관원이 국장도감에 많았던 것은 국정 핵심 관료가 국장도감에 우선적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국장도감은 도청(都廳), 1방(房), 2방(房), 3방(房), 분장흥고(分長興庫), 분전설사(分典設司), 표석소(表石所), 우주소(虞主所), 별공작(別工作) 등으로 일을 분장하였다. 도청, 1방, 2방, 3방은 형조·공조·사역원 등에 설치되었다.

도청은 홍문관 부응교 서유방과 시강원 필선 유의양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국장도감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였다. 이들은 도청으로 차임된 후에 감조관(監造官)·분장흥고·분전설사·표석소·우주소·별공장 등의 인력 구성과 관련하여 충호사의 뜻을 국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아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도청에서는 일시적으로 차출되는 인력 등에 대해서도 국왕에게 품의를 올려 시행하였다. 도청에서는 영조의 국장에 쓰일 시장(諡狀)·지문(誌文)·애책문(哀冊文)·시책문(諡冊文)의 제술관과 서사관(書寫官) 그리고 개명정(改銘旌)·보전문(寶篆文)·표석대자전문(表石大字篆文)·음기(陰記) 서사관(書寫官)의 명단에 대한 품의를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얻었다.

국장도감의 임무를 담당할 인력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일에도 관여하였다. 국장도감에서 담당할 재궁(梓宮)·거여(車輦)·책보(冊寶)·복완(服玩)·능지(陵誌)·명기(明器)·길흉의장(吉凶儀仗)·상유(喪帷)·포연(鋪筵)·제기(祭器) 등 필요한 물품 조사, 새로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수선하여 사용할 것인지, 의물 제작 재료와 비용 마련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의 일을 국왕에게 품의하여 결정하고, 관련부서에 필요한 인력·물품·비용 등을 요구하여 국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sup>20</sup>

<sup>18</sup> 『승정원일기』 77책, 정조 즉위년 7월 11일 경진.

<sup>19</sup>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27일 무술.

<sup>20</sup> 국장도감에서 요구한 타 관서의 협조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서	날짜	발신	수발	내용
장계	7.26~7.28	도감	국왕	발인 이후 반우할 때까지 수시로 진행 상황 보고
이문	3.10	도감	경기감영	공사(公事)를 전할 사람 1명 차출 요구
	3.12	도감	빈전도감	개명정(改銘旌) 서사관(書寫官) 통보
	3.12	도감	경기감영	금보 등 주조에 필요한 백토(白土) 4섬을 생산지에 복정(卜定) 보낼 것
		도감	강원감영	대여 장횡강(長橫缸) 17개를 생산지에 복정하여 보내 것
	3.	도감	전라감영	각종 상자를 만들 재료(烏竹150개)와 장인 3명을 보낼 것
	3.	도감	훈련도감	재궁을 만들 때 사용할 창병목(槍柄木) 51條 보낼 것
	3.18	도감	산릉도감	도감 장인의 요포로 귀 도감의 미포 중 훈련도감 800냥, 금위영미 350석, 어영청 목면 20동 보낼 것
		도감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도감 장인의 요포로 훈련도감 800냥, 금위영미 350석, 어영청 목면 20동 보낼 것
	3.	도감	경기감영	지석 굵기 위해 사용원 서리가 왕래할 때 탈 기마와 가자군(架子軍) 인로군(引路軍)을 차출하여 보낼 것

타 관서의 세부적인 시행 내용은 관문(關文)과 감결(甘結) 등을 보내어 국장 준비 과정을 살피고, 확인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국장도감이 국장 관장을 위한 기구이긴 하나, 의례 담당 관청인 예조와 협조하여 국장을 진행하였다. 예조는 국장과 관련되어 결정된 내용을 국장도감에 통보하였다. 첫째, 영조 대왕의 시호·묘호·전호·능호 등이 결정되자, 예조에서는 국장도감에 알렸다. 둘째, 우주(虞主) 조성처가 명정전으로 결정되었다. 셋째, 영조대왕 인산(因山)의 각종 택일을 통보, 넷째, 영조의 시보(諡寶)·개명정(改銘旌)·우주(虞主)식을 정하여 통보, 다섯째, 영조 발인시 시행될 도로·교량·명산대천 제사처, 제관 등 제반 사항 통보 다섯째, 발인시 전후 사직·종묘·영녕전·저경궁·육상궁·휘녕전 등에 올린 제전의 길일 통보, 여섯째, 영조의 청시(請諡)·상시(上諡)·개명정(改銘旌) 등의 습의 일정 및 복색 등을 통보하였다.

도청에서 예조와 협조하면서 국장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동안 1방·2방·3방에서는 맡은 소임을 수행하였다. 1방 낭청은 형조 좌랑 송지경(宋持敬)과 사복시 주부 이채(李采), 감조관은 부사용 이관성(李觀城)·정철순(鄭喆淳)이었다. 1방 서리 5명은 병조·한성부·공조·형조·예조에서 1명씩 차출되었으며, 서원(書員)은 사재감에서 2명, 제용감·군기시에서 1명씩 4명이 차출되었다. 사령 5명은 사도시·위장소·호조·사섬시·시포서에서 차출되었고, 가사령(假使令) 2명은 도감에서 별도로 급료를 지급하여 사람을 사용하였다. 또한 1방에서 제조한 의물 등을 보관한 창고를 지킬 수직군 4명, 금화군 10명, 포도 군사 2명 등이 있었다.

1방의 감조관 2명은 제작해야 할 의물(儀物)을 나누어 맡았다. 감조관 정순철은 대여(大輿) 일제구(一諸具)와 영좌교의(靈座交椅) 1좌(坐)의 제작을 맡았다. 대여를 구성하는 소방상(小方牀) 1좌(坐)·운대판(輪臺板) 1좌(坐)·소금저(素錦褥) 1부(部)·가운대판 1좌·가소금저 1부 그리고 영좌교의를 구성하는 방협상(傍挾床) 1좌·장족아(長足兒) 1쌍·향좌아(香坐兒) 1쌍·난간평상(欄干平床) 1좌·전평상(箭平床) 1좌·운여(輪輿) 51부·마목(馬木) 83부·내왕판(來往板) 200립(立)·지목(支木) 70립·금야지목(金也只木) 3섬[石]을 제작하였다.

감조관 이관성은 견여(肩輿) 일제구, 외재궁여(外梓宮輿) 일제구, 신백여(神帛輿) 1좌, 신백요여(神帛腰輿) 1좌, 공연(空輦) 1좌, 평교자(平轎子) 1좌 등의 제작을 맡았다. 외재궁여에는 부속된 홍촉룡(紅燭籠) 2쌍, 신백여·신백요여에는 모두 무부교의(無趺交倚) 1좌와 좌(座倚子)를 갖추어야 했다. 향정자(香亭子) 2부, 요여 8부, 채여 8부, 가자(架子) 2부, 대주렴(大朱簾) 과 틀[機] 2부 그리고 거차(車子) 11냥(兩)을 제작하였다.

1방에서 제작한 의물은 모두 발인 때 사용되는 것이었다. 1방에서 의물을 제작한 장인은 야장(冶匠)·목수·차장(車匠)·가칠장(假漆匠)·병풍장(屏風匠) 등 38종의 장인 148명

		도감	사용원	지석 130장 만들어 낼 것
	3	도감	병조	발인할 때 위장, 부장, 여사군 등을 보내줄 것. 발인시 관원들의 기마(騎馬)와 복마(卜馬) 보낼 것
	6.	도감	경기감영	발인시 경기지역 도로, 교량, 명산대천에 올린 제사의 집사와 희생제물을 적어 보고할 것
	7.	도감	산릉도감	퇴광에 매안할 애책, 증백, 증옥함의 견양을 보내니 참고 시행
	7.	도감	경기감영	발인시 경기지역 도로, 교량, 명산대천에 제사드릴 곳에 청소와 제향을 준비하러 갈 서리와 사령 등을 지원할 일

이었다. 장인의 소속은 선공감·내수사·교서관·공조·상의원·군기시·귀후서·도화서·훈련도감·총융청·금위영·용호영·수어청 등의 관서와 사장(私匠)까지 포함하였다.

발인 때 견여는 6교대로, 대여는 12교대로 산릉으로 옮겼다. 견여와 대여를 메고 가는 여사군(興土軍)은 병조·위장소·내삼청·한성부·여사청 등지에서 인력을 동원하였다. 대여를 옮기는데 동원된 인력은 여사군 5,519명, 부장(部長) 141명, 위장(衛將) 12명, 충찬위(忠贊衛) 42명 등 총 5,714명이었다.

특히 대여를 앞과 뒤에서 끄는 인력은 시민(市民) 등이 담당하였는데, 영조 발인 때에는 송도의 군인 100명이 올라와 자진하여 시민과 함께 대여를 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1</sup> 송도의 군인들은 1728년(영조 4) 병조판서 조문명(趙文命)의 청으로 서북 무관의 예에 따라 송도의 무관도 통청해 주기를 청하였다. 영조는 선대에 송도 무관의 통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뜻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통청을 허락하겠다는 전교를 내렸다.<sup>22</sup> 송도의 군인들은 영조의 덕분에 무관의 청요직인 선전관에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고자 여사군을 자처하고 나섰다.

2방 낭청은 애초에 예조 정랑 이석제(李奭濟)와 병조 정랑 박도상(朴道翔)으로 정하였다. 병조 좌랑 박도상은 차임된 지 20일만에 사직으로 체직되어서 부사과 이득로(李得老)가 차임되었다. 감조관으로는 부사용 송약흠(宋約欽)이 담당하였다. 서리 5명은 공조·형조·병조·교서관 등에서 차출하였다. 서원 2명은 사도시에서, 고직(庫直)은 병조에서, 사령 4명은 호조·평시서·군기시·위장소에서 차출되었다. 가사령은 1명은 광홍창에서 차출되었으나, 1명은 도청에서 급료를 지급하였다. 제물한 의물을 지킬 수직군사는 2명, 의장 수직군사 1명, 포도군사 2명이 배치되었다.

2방에서는 발인할 때 사용할 길의장(吉儀仗)·흉의장(凶儀仗)·명기(明器)·복완(福玩)·우구(雨具)를 제작하였다. 길의장은 주장(朱杖)·홍문대기(紅門大旗)·홍개(紅蓋) 등 82종, 흉의장은 방상씨(方相氏)·죽산마(竹散馬)·죽안마(竹鞍馬) 등 14종, 명기는 제기·악기 등 42종, 복완은 국왕이 착용하는 의상·각종 함·궤·장 등 20종, 포연과 우구는 목단화병(牡丹花屏)·소병(素屏) 등 26종 총 184종의 각종 의물과 포연·우구를 마련하였다. 2방에서 마련한 의물은 발인 때 사용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반우일에 혼전에 들일 청개(靑蓋)·홍개(紅蓋)·봉선(鳳扇)·작선(雀扇)과 퇴광에 매안할 복완함·각종 명기함·궤궤(几櫃)·장궤(杖櫃)·어제갑(御製匣)·유서궤(諭書櫃)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발인시 사용되는 길의장은 의장고의 것을 그대로 시용하거나 혹은 보수·염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것이 없는 의장만 다시 제작하였다. 흉의장은 국상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보관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죽산마·죽안마와 같은 의물 등은 산릉에 도착하면 소각하였다. 그러므로 흉의장은 상당 부분 다시 제작되었다. 2방에서는 각종 의물을 조사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 보수나 염색을 다시 해야 할 것 그리고 새로 제작해야 할 것을 분류하고, 계사(計士)가 계산한 물량을 기준으로 각 관서의 지원을 받았다. 2방에 물량을 제공한 관서는 호조·제용감·예빈시·의영고·선공감·군기시·사재감·와서·마계(馬契)·별공작·평시서·공조·사섬시·장홍고·풍저창 등이었다. 분장홍고는 포연과 우구의 제작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2방에 소속되었다.

2방의 각종 의물은 화원(畵員)·죽산마장(竹散馬匠)·야장(冶匠)·차장(車匠) 등 54개 분

<sup>21</sup> 『승정원일기』 77책, 정조 즉위년 7월 10일 기묘.

<sup>22</sup> 『승정원일기』 36책, 영조 4년 7월 7일 병진.

야 장인 140명이 제작하였다. 이들 장인은 도화서·나례청·장악원·훈련도감·공조·교서관·공조·상의원·금위영·봉상시·군기시·관상감·선공감·별공작 등 관서 소속 장인 그리고 사장(私匠)이었다. 2방은 홍의장·명기 등을 제작하기 때문에 나례청과 장악원의 장인이 차출되었다.

2방에는 의물을 제작할 장인만이 아니라 발인할 때 제작된 의물을 가져 갈 차비관·차비군 또한 동원되었다. 차비관으로는 충찬위·충의위·검사복 등 62명, 길의장 및 여사군을 검칙할 부장 32명, 각양 궤함·배안상 담당 차비관 41명(훈련원·예빈시·무겸선전관·내시·사용원·군자감·사재감·군기시·공조·광홍창·활인서·전생서·빙고·와서·충찬위·봉상시·선공감관원 등에서 차출), 산릉에서 계빈할 때 재궁(宰宮) 닦는 일과 관련하여 4명, 차비관 도예차(都預次) 5명, 거안자 도예차 3명, 주장·곡장·유서궤 등 담당 차비관 28명으로 총 175명의 관원이 차출되었다. 또한 차비 여사군이 871명, 각양 우구군(雨具軍) 19명, 반우할 때 차비군 445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2방의 의물과 관련된 차비 인력은 총 1,510명이 필요하였다.

3방의 소임은 시책·시보·애책·증옥·증백·발인 할 때 들고 갈 삼선(髮扇)·광중에 넣을 삼선·만장 96축과 예차 4축 총 100축 제작, 봉상시에서 제작한 우주(虞主) 검찰, 혼백함을 담은 토등 방상자 제작, 산릉에서 사용할 제기 주조, 산릉 각처에 제기 진배 검찰, 표석·지석 제작 검칙, 분전설사의 차장(遮帳) 설치 검칙 등이었다. 시책·시보·애책·증옥·증백을 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싸서 넣을 보자기들과 상자 등도 모두 갖추었다. 만장은 관원들이 제술하여 사자(寫字)한 것을 족자로 만들어 발인 때에 들고 갈 수 있게 하였다.

3방에도 낭청 2명과 감조관 1명이 소임을 맡았다. 당초의 낭관은 호조 정랑 김기후(金基厚)와 공조 좌랑 정지검(鄭志儉)이었다. 김기후는 태거되어 형조 정랑 함덕우(咸德雨)로 변경되었다. 공조 좌랑 정지검은 도감 낭청의 소임을 감해주었기 때문에, 제용감 판관 김재균(金載均)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국장이 끝나기 전에 김재균이 외임으로 나가게 되어 상의원 별제 정창기(鄭昌期)가 소임을 맡았다. 감조관은 전생서 봉사 남인로(南寅老)가 맡았다. 3방의 업무를 보조할 서리 5명은 호조·병조에서, 서원 2명은 제용감에서, 고직 1명은 병조에서, 사령 4명은 병조·평서시·사도시·위장소에서 가사령은 군자감·광홍창에서 차출되었다.

3방의 의물을 제작한 장인은 사자관·화원·옥장(玉匠) 등 42개 분야의 공장 135명이었다. 3방 역시 제작된 의물을 배행할 차비관이 필요하였다. 청시(淸諡) 30명, 상시(上諡) 19명, 발인 때 교명·죽책·옥인·옥책·옥보·시책·시보·혼백 대축·우주 대축·증백·애책 등과 관련되어 171명 등 총 220명의 경관 각사와 충찬위 관원이 차비관으로 차출되었다. 발인 때 차비 여사군 289명도 한성부와 여사청에서 차출되었다.

#### 4. 빈전도감의 기능과 역할

빈전도감은 영조 사망 이후 목욕에서 빈전 설치에 이르는 일을 관장하였다. 이 도감이 관장한 일은 특성상 대부분 성복 후에는 끝이 나지만, 제전(祭奠)과 성빈에 관한 것은 국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영조의 『빈전도감 의궤』는 이조의 별단이 매우 소략하다. 빈전도감의 관원은 『국장도감의궤』의 이조 별단과 비교해보면 이동 정보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다. 도감이 설립된 3월 5일부터 도감이 해체되는 7월 28일까지 교체되었는지의 여부가 상세하지 않다. 공조판서 김한기는 3월 10일 파직되었다고 하나, 그의 후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에 의거하면, 정조가 즉위한 3월 10일 당일 공조

판서 김한기가 파직되었다. 총호사는 공조판서 김한기의 후임으로 지돈녕(知敦寧) 정상순(鄭尙淳)을 추천하였으나<sup>23</sup>, 제수되지는 않았다. 김한기는 정순왕후의 작은아버지로서 사도 세자를 탄압하고, 시과를 처벌하였던 일로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파직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정순왕후의 체면을 보아 그를 곧 서반직에 제수되었으며, 혼전도감의 제조에 차임하였다.<sup>24</sup>

<표 4> 영조의 빈전도감 구성원

직임	관직	이름	근무일	근무 상황	비고
제조	예조판서	조중회	3.5~		
	공조판서	김한기	3.5~3.10	파직	
	형조판서	정존겸	3.5~		
도청	홍문 부응교	홍국영	3.5~		
	홍문 교리	정시민	3.5~		
낭청	호조 정랑	정익겸	3.5~3.14	영건낭청 차임	3방 소임
	장악원 주부	조진완	3.14~3.28	신병 개차	1방 소임
	전 주부	유한정	3.28~7.20		
	예조 정랑	한 선	3.5~3.10	성복 후 감하	
	병조 정랑	남학문	3.5~7.9	외임제수	
	의빈시 도사	홍성호	7.20~7.28		
	형조 정랑	박성원	3.5~3.10	성복 후 감하	2방 소임
	공조 정랑	홍원섭	3.5~		3방 소임
	한성부 판관	정동협	3.5~		2방 소임

빈전도감은 제조와 도청 그리고 3방으로 구성되었다. 빈전도감 당상과 도청의 처소는 향실(香室)에 마련되었다. 총호사·빈전도감 제조·도청은 성복하기 전에는 모두 궐내에서 직속하였다. 1방에서는 제전(祭奠)을 올리는 일, 성복 후 빈전의 모든 일, 개명정, 발인하여 산릉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일 등을 살폈다. 1방에는 낭청 2명이 배치되었는데, 예조 정랑 한선(韓澹)과 병조 정랑 남학문(南鶴聞)이 차임되었다. 한선은 성복 이후에 도감 직임이 면제되어서 장악원 주부 조진완(趙鎭完)이 차임되었으나, 신병으로 전 주부 유한정(兪漢鼎)과 의빈시 주부 홍성호(洪成浩)로 개차되었다. 낭청 이외에 서리 5명은 형조·한성부·호조·병조에서, 고직 1명은 사복시, 사령 4명은 호조·장흥고·위장소·사도사에서 차출되었다.

1방은 우선 영조 승하 후 습전(襲奠) 이하 성복전·조석전·삭망전 의례를 담당하였다. 실제 제전을 담당한 것은 봉상시·내섬시·내자시 등 삼시(三寺)이었다. 1방에서는 제전 가운데 대체(大祭)인 습전·소림전·대림전·성빈전·성복전·속절·삭망전·별전(別奠)·계빈전·조전(祖奠)·천전(遷奠)·견전·주정전(晝停奠)·산릉 성빈전·입주전(立

<sup>23</sup> 『승정원일기』 77책, 영조 52년 3월 11일 임오.

<sup>24</sup> 『영조대왕 혼전도감 의례』

主奠) 등 대제의 감膳(監膳)을 행하였다. 그 외에 재궁(棗宮) 가칠을 한 후에 재궁에 상(上)이란 글자를 쓰며, 처음 작성된 명정을 소각하고 증시(贈諡) 이후 명정을 고치는 일 등을 주관하였다. 명정을 고친 것은 2건을 준비하여 1건은 광 안에, 1건은 발인할 때 사용하였다. 발인할 때 사용된 명정은 산릉에 도착한 이후에는 소각하였다.

2방은 성복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다. 2방에도 낭청 2명이 배치되었으나, 그 중 형조 정랑 박성원(朴星源)은 성복 후에 도감의 직임을 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성부 판관 정동협(鄭東協)이 일을 관장하였다. 2방은 왕실과 관원의 성복제구 지급을 관장하였다. 성복제구란 성복시 착용해야 하는 상복·모(帽)·상장(喪杖)·관(冠)·수질(首絰)·요질(腰絰)·마대(麻帶)·초혜(草鞋) 등을 말한다. 첫째 중궁전·혜빈궁·세손궁·빈궁의 성복제구는 상의원에서 지어 올렸다. 둘째, 수릉관·시릉관의 성복제구는 경기감영에서 재료를 지급하였다. 수릉관·시릉관은 왕릉 소재지의 감영에서 성복 재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경기감영에 성복제구를 분배한 것이다. 셋째, 대전관(代奠官)·명부(命婦)의 성복제구의 경우 상복 옷감은 2방에서 지급하고, 기타 제구는 제용감·공조가 제공하였다. 넷째, 연령군방·대행대왕전·중궁전·수은묘(垂恩廟)·세손궁·빈궁·육상궁·대빈궁·영빈방·명빈방·소의방·귀인방·정빈방·의열궁·숙의방·화순옹주방·화평옹주방·화협옹주방·화완옹주방·화유옹주방·화령옹주방·화길옹주방·청연군주방·청선군주방·은전군방·청군현주방의 소속 여관(女官)의 상복 옷감은 2방에서 바로 지급하고, 기타 제구는 제용감·공조 지급하였다. 다섯째, 대행대왕전·중궁전 소속 관원의 성복제구는 소임에 따라 삼분하여 2방·공조·평시서에서 상복 옷감과 기타 제구를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여섯째, 혜빈궁·세손궁·빈궁·빈전(殯殿)·능소(陵所)·선원전·저경궁·태령전·육상궁·의열궁·효장묘·수은묘·의소묘·내원(內苑) 등 소속 관원도 소임에 따라 이분하여 공조·평시서에서 상복 옷감과 기타 제구를 제공하였다. 일곱째 궁궐과 각 궁원의 내관·의정·부원군·부마·사친(私親) 그리고 도감 소속 인원 등에게도 상복 옷감을 지급하였다. 2방에서 상복 옷감을 지급하는 계층은 대전관·명부·궁방의 여관(女官), 그리고 대행대왕전과 중궁전의 내관·사알·사약·반감 등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2방의 장인은 경사(經師)·너울장(羅兀匠)·두수장(頭手匠) 등이 소속되었다.

3방에서는 대행 대왕의 목욕에서 성빈에 이르는 일들을 관장하였으며, 찬궁(欝宮) 자문(紫門)을 짓는 일도 소임 중 하나이었다. 3방은 사옹원에 설치되었으며, 호조 정랑 정익검(鄭益儉)·공조 정랑 홍원섭(洪元燮) 등 낭청 2명이 배치되었다.<sup>25</sup> 서리 5명은 형조·한성부·병조·동학에서, 고직 1명은 선혜청에서, 사령 5명은 공조·사복시·위장소에서, 문서 수직군사 2명은 위장소에서, 포도 군사 2명은 좌·우포청에서 차출되었다. 3방에서는 대행대왕의 목욕·습[설빙(設氷)·영좌(靈座)·명정(銘旌)·치비(治裨)·영상(靈牀) 이설 등]·대렴·재궁·성빈·찬궁[영좌(靈座)·신백함(神帛函)·영침(靈寢)·의려(倚廬) 등 제구]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였다.

그 외 빈전 별공작을 두었다. 빈전 별공작은 경희궁에 있는 사복시 앞뜰에 두었고, 감조관으로 선공감 감역관 홍경유(洪景游)를 차임하였다. 별공작에서는 목욕·대렴·찬궁·의려·명정 등과 관련된 기물들을 제작하였다. 별공작의 장인(匠人)들은 목수·소목장 등 16종 장인 63명과 대인거장·소인거장 등 5종 장인 13패(牌)가 동원되었다.

<sup>25</sup> 『영조대왕 빈전도감 의례』의 이조별단에는 정익검은 3월 14일 영건낭청으로 차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빈전도감 삼방의례』에는 정익검의 체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5. 혼전도감의 역할과 기능

혼전도감은 반우한 이후 영조의 신주를 모시는 혼전에 관련된 일을 관장하였다. 혼전은 반우한 이후 종묘에 부묘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혼전도감의 구성원은 빈전도감의 구성원과 중복되기도 하였다. 혼전조감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표7> 영조 혼전도감 구성원

직임	관직	이름	근무일	근무 상황	비고
제조	예조판서	조중희	3.5~3.11	파직	
	이조판서	서명선	3.11~3.19	체직	
	행부사직	김한기	3.21~7.28	파직	
	지돈녕	정상순	3.11~7.28		
	형조판서	정존겸	3.5~3.28	좌의정 제수	
	행부사직	황경원	3.28~7.7	파직	
	형조판서	이 계	7.8~7.28		
도청	홍문 부응교	홍국영	3.5~3.13	도승지 제수	
	전 교리	송환억	3.13~4.3	대간 제수	
	부사과	임득호	4.3~6.17	승지 제수	
	홍문 교리	정시민	3.5~4.2	승지 제수	
	홍문 교리	이병모	4.2~7.28		
낭청	한성부 판관	정동협	3.5~4.16	감하	2방 소임
	예빈시 주부	이보침	4.16~4.21	태거	
	공조 정랑	윤광부	4.21~4.29	병으로 체임	
	예빈시 주부	홍대용	4.29~7.28	6.18부터 3방겸찰	3방 소임
	공조 정랑	홍원섭	3.5~4.16	영조낭청 이거	
	의금부 도사	한용화	4.16~5.12	외임	
	공조 정랑	윤귀동	5.12~6.18	병으로 체임	

혼전은 창경궁 문정전으로 정해졌다가, 정조의 전교로 경희궁 태령전으로 옮겨서 효명전이라 이름하였다. 혼전도감은 도청, 2방 그리고 3방으로 구성되었는데, 다른 도감과는 달리 1방이 설치되지 않았다. 빈전도감 1방의 소임 중 제전(祭奠)을 관장하는 것이 곧 혼전도감 1방의 소임이었기 때문에 혼전도감에 별도의 1방을 둘 필요가 없었다. 제전은 국장 이후에도 혼전에서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혼전도감의 구성원 차임과 혼전 배설에 관한 전반적인 일은 도청에서 관할하였다. 혼전도감의 주된 소임은 3년 동안 배설해야 할 제기·포진(鋪陳) 등을 마련하여 혼전에서의 제전(祭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혼전도감에서는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의 의궤를 제작하였다.

2방의 소임은 조성소·수리소·별공작을 관장하는 것이다. 2방의 낭청은 1명이 배정되어, 한성부 판관 정동협(鄭東協)이 차임되었다. 그가 다른 소임을 받게 되자, 예빈시 주부 이보침(李普瞻)이 대신 차임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 태거되어 공조 정랑 윤광부(尹光孚)를 거쳐 예빈시 주부 홍대용(洪大容)에게 이르게 되었다.

조성소에서는 경희궁 태령전을 정전(正殿)으로 조성하고, 전전중배설청(殿前中排設廳)·신좌교의(神座交倚)·신탕(神榻)·제상(祭床)·향안(香案)·이안청(移安廳)·신삼문(神三

門)· 내기입청(內器臨廳)· 제기고(祭器庫)· 판위(板位)· 어재실소병(御齋室素屏)· 신백매안 제구(神帛埋安諸具) 등을 수리하였다. 감조관으로는 전 도사 유한경(兪漢景)이 차임되었다. 수리소는 어재실(御齋室)· 안향청(安香廳)· 제물진설마루[祭物陳設抹樓]· 제기입성곳간[祭器入盛庫間]· 제물숙설청(祭物熟設廳)· 제물고(祭物庫) 등을 수리하여 조성하는 일을 하였다. 감조관은 전 참봉 홍량유(洪亮猷)· 장원서 봉사 김리중(金履中)· 돈녕부 참봉 박지원(朴知源) 등이 담당하였다. 별공작에서는 혼전의 상탁과 목물(木物)을 제작하였는데, 감역관은 선공감 감역 홍경유(洪景游)가 맡았다. 2방 조성소에 동원된 장인(匠人)은 화원· 목수· 병풍장· 야장· 석수 등 24개 분야 167명, 수리소에 동원된 장인은 주장(注匠)· 니장(泥匠)· 개장(蓋匠)· 석수(石手) 등 9개 분야 66명으로 총 233명이었다.

3방의 소임은 제기를 주조하는 일이었다. 3방 낭청은 1명이 배정되었으나, 소임이 바뀌거나 외임에 제수되거나 혹은 병으로 교체되어 최종적으로는 2방의 소임을 맡은 예빈시 주부 홍대용이 겸찰하였다. 3방에서 주조한 제기는 주중준(鑄衆罇)· 희준(犧罇)· 호준(壺罇)· 저준(著罇) 등 42종 55기였다. 그 외 혼전에서 사용되는 기명은 각 관서에서 제공받았다. 수랏간 기명은 상의원에서, 전사청 기명은 공조 주성청·공조·선공감·사도시·제용감·군자감·광홍창·장흥고 등에서, 별사용 기명은 공조 주성청·공조·사도시·선공감·제용감·장흥고에서, 병공색 기명은 공조 주성청·공조·제용감·장흥고·선공감·빈전에서, 진상반공색 기명은 공조 주성청·공조·제용감·사도시에서, 상배색 기명은 공조 주성청·공조·제용감·장흥고에서, 증색 기명은 공조 주성청·제용감·와서·내자시·사도시·장흥고에서, 포장색 기명은 공조 주성청·공조·선공감·사도시·제용감·장흥고·내자시·사용원에서, 칙색 기명은 공조 주성청·선공감·제용감에서 가져다 사용하였다.

#### 6. 산릉도감의 역할과 기능

산릉도감은 제조 3원, 도청 2원 그리고 낭청 9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을 참조하면, 25명의 관원이 산릉도감의 일에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제조의 경우 총 7명이 제수되었다. 이들 가운데 호조판조 구윤옥은 산릉도감 제조로 제수된 지 1주일 만에 영건도감 제조로 옮겼다. 구윤옥 대신 제수된 사직 홍낙성은 파직되었다가 다시 제수되어 직임을 수행하였다. 공조판서 김종성과 우참찬 윤동섭은 국장도감 제조와 산릉도감 제조의 직임을 서로 바꾸었으며, 이조판서 이종호와 한광희 역시 그러한 경우이다. 국장도감과 비교할 때 정치적인 문제로 파출되거나 유배되는 관원이 없어서 당상관의 교체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표 8> 영조 산릉도감 구성원

직임	관직	이름	근무일	근무 상황	비고
제조	호조판서	구윤옥	3.5~3.12	영건도감 제조	
	행사직	홍낙성	3.12~4.17 6.7~7.28	파직	
	행공조판서	박종덕	4.17~6.7	체직	
	행공조판서	김종정	3.5~3.10	국장도감 당상으로 바뀜	
	우참찬	윤동섭	3.10~7.28	국장도감 당상에서 옮김	
	이조판서	이종호	3.5~7.11	국장도감 당상으로 옮김	
	행사직	한광희	7.11~7.28	국장도감 당상에서 옮김	

도청	부사과	이보은	3.5~7.28		
	부사과	유항주	3.5~3.27	삭출	
	부사과	이의봉	3.27~7.28		
낭청	제용감 판관	김재균	3.5~4.19	체직	삼물소 소임
	공조 정랑	윤구동	4.19~4.23	체직	
	공조 정랑	이구영	4.23~7.28		
	사도시 주부	한대유	3.5~4.19	체직	
	상의원 주부	이의질	4.19~4.23	체직	
	평시서 주부	서유후	4.23~7.28		조성소 소임
	호조 좌랑	정재원	3.5~7.28		
	공조 좌랑	임정주	3.5~6.20	외임	노야소 소임
	병조 좌랑	김규상	3.5~7.28		보토소 소임
	예조 좌랑	정 유	3.5~7.28		노야소 소임으로 대부석소 소임 겸찰
	사용원 첨정	이 래	4.16~5.15	체직	조성소 소임
	장악원 주부	윤희후	3.5~7.28		
	형조 좌랑	서만수	4.16~7.28		대부석소 소임
	상의원 주부	김재화	4.16~7.28		소부석소 소임
경 낭청	병조 정랑	박진우	4.18~7.28		

산릉도감은 산릉의 위치를 정하고, 왕릉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산릉을 봉심하여 매표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총호사를 비롯한 산릉도감 당상·도청·낭청 각 1명씩, 예조 당상, 관상감 제조, 영조의 부마, 지관 등이 홍릉·소령원·건원릉·태릉 등지를 봉심하여 매표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자각·향대청·전사청·비각·수라·수복방·재실·가재실·집사청 등 건물 조성과 함께 능역도 시작되었다.

영조 산릉이 조성될 때, 제주 백성 30명이 올라와서 능역을 자원하였다. 제주 백성들은 영조에게 두터운 공훈을 받았다 하여 전 첨사 이광빈을 따라 올라와 능역을 마다하지 않았다.<sup>26</sup> 정조는 이들을 기특하게 여겨서 급료를 계산하여 주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능역을 참여하였던 제주 백성 김진태(金鎭泰)가 광의 흙을 파내다가 압사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sup>27</sup>

산릉도감에는 삼물소(三物所)·조성소(造成所)·노야소(爐冶所)·대부석소(大浮石所)·보토소(補土所)·소부석소(小浮石所)·수석소(輸石所)·별공작·분장흥고·번와소(燔瓦所) 등으로 일이 분장되었다. 삼물소의 소임은 사토(沙土)·각종 가옥·목물 등을 관장하였다. 삼물소에는 낭청 2명, 영역부장(領役部將) 2명, 서리 2명, 고직 1명, 사령 2명, 가사령 1명, 수직군사 2명 등이 배치되었다. 삼물소에서는 옹가 제작·퇴광 내외를 조성하고, 봉분에 사용할 사초(莎草)를 모화관에서 따오는 일 등 능을 조성하는 작업을 관장하였다. 능 조성하는데 목수 2명, 사토장(沙土匠) 12명 그리고 모군(募軍) 120명이 동원되었다.

<sup>26</sup> 『승정원일기』 77책, 정조 즉위년 6월 12일 신해.

<sup>27</sup> 『영조대왕 산릉도감의궤』 상, 7월 9일, 전 첨사 이광빈 수분.

조성소에는 낭청 2명, 감조관 1명, 영역부장 5명, 서리 3명, 서원 3명, 고직 1명, 사령 4명, 수직군사 2명 등이 배치되었다. 조성소에서는 정자각·신문·향청·정재실(正齋室)·가재실(假齋室)·비각·수랏간·수복방·전사청 등 산릉의 각종 건물을 조성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노야소는 낭청 2명, 서리 2명, 고직 1명, 사령 1명, 수직군사 1명이 배치되었다. 노야소는 도성 내와 산릉에 노야를 배치하였다. 3월 25일 군기시 내에 노야 8좌를 설치하였다가 4월 11일 거두었고, 그 후 능소의 화소에 노야 8좌를 설치하였다. 노야소에서는 산릉 조성에 필요한 철물을 제작하였다. 각종 철물은 야장·줄장(挈匠)·납염장·쇄약장·박배장 등 장인(匠人) 16명과 모군 10명이 제작하였다.

대부석소에는 낭청 2명, 영역 부장 2명, 서리 4명, 고직 1명, 사령 3명, 수직 군사 2명 등이 배치되었다. 대부석소는 석물을 제작할 돌을 캐내는 일을 관장하였다. 영조 원릉의 석물에 사용된 돌은 경기도 양주 노원 중계(中契)에 캐낸 것이었다.<sup>28</sup> 여기에서 제작한 석물은 혼유석·고석(鼓石)·하박석(下薄石)·장명등·개석·문인석·무인석·마석·호석·양석·면박석(面薄石)·우박석(隅薄石)·석주(石柱)·동자석·죽석(竹石)·망주(望柱)·망대(望臺)·농대(籠臺)·하박석(下薄石)·가첨(加첨) 등이었다. 석물을 제작하는데 석수·야장·화장(味匠)·니장(泥匠)·개장(盖匠)·도자장(刀子匠)·각수 등 장인 169명과 모군 75명이 동원되었다.

보토소는 낭청 1명, 감조관 1명, 영역 부장 5명, 서리 3명, 고직 1명, 사령 3명, 가사령 1명, 수직군사 1명이 배치되었다. 원릉 동구 밖 각처에서 흙을 파내서 원릉의 곡장 밖혈 앞 좌우, 정자각 좌우뜰 등에 보토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보토하는 일은 사토장(莎土匠) 6명과 모군 960명이 맡았다. 모군은 32패로 나누어서 교대로 작업하였다. 소부석소는 경기도 양주 노원 중계에서 돌을 떼어내어서 정자각·제실·비각 등 각처 건축물의 주초(柱礎)로 사용하는 일을 맡았다. 이 소임을 위해서 낭청 1명, 감조관 1명, 영역 부장 2명, 서리 2명, 고직 1명, 사령 2명, 수직군사 2명 등이었으며, 석수·야장 등 장인 87명과 모군 90명이 작업을 하였다.

수석소는 경기도 양주 노원에서 캐낸 돌을 능소까지 나르는 일을 담당하였다. 여기에는 감조관 1명, 영역 부장 2명, 서리 1명, 고직 1명, 사령 1명, 수직군사 1명 등이 배치되었다. 감조관은 영역 부장과 함께 노원에서 능소까지 대·중·소 썰매, 판동차(板童車)·운판(輪板) 등을 활용하여 돌을 운반하였다. 기구를 이용하여 돌을 운반하기에 차장(車匠)·선장(船匠)·결거(鬃鉅)·대인거(大引鉅)·줄군(造乙軍) 등 20명의 장인과 모군 30명이 활용되었다.

별공작은 산릉에서 근무하는 관원이나 장인들이 거처할 가가를 건축하고, 산릉에서 소용되는 기명, 목물 등을 제작하고, 칠을 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분장홍고의 소임은 포진(鋪陳)·유둔(油菴)·석자(席子)·지의(地衣) 등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발인하여 산릉에 도착한 대여·견여 등의 의물이나 산릉에서 소용되는 자리 종류들로 인장(茵匠)·피장(皮匠)·병풍장 등 8명의 장인과 5명의 모군이 제작하였다. 와소는 산릉에 조성되는 건물의 기와를 굽는 일을 관장하였다.

산릉도감에서는 전례에 따라 국장도감·빈전도감 등 각종 도감에서 사용할 비용을 마

<sup>28</sup> 『영조대왕 산릉도감의궤』 하, 대부석소의궤.

련하여 분배하였다. 산릉도감에서 마련한 비용은 진흙청·금위영·어영청·훈련도감·사복시 그리고, 각 도의 감영과 병영 등지에서 제공한 것으로, 쌀 4,600섬[石], 전(錢) 5,000냥 그리고 목면 216동(同)이었다. 그러나 산릉 조성이 시작되자, 비용이 부족하여 호조·병조·사복시·사용원에서 쌀 1,100섬, 전 10,000냥, 목면 77동을 더 보태어 총 쌀 5,700섬, 전 14,000냥, 목면 296동, 포 14동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산릉도감에서 사용한 비용은 쌀 4,960섬, 전 12,490냥, 목면 261동, 포 14동 등으로 총 비용의 약 88%에 해당되었다. 산릉도감에서 국장 비용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산릉 조성에 동원되는 장인과 모군들의 급료 지급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다른 도감의 인력은 대부분은 다른 관서의 인원을 차출하였기 때문에 급료가 지급되는 일이 많지 않았다.

## 7. 맺음말

이상에서 영조 사망 이후 도감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을 도감 별로 살펴보았다. 영조의 사망이 확인된 3월 5일 바로 총호사를 비롯하여 빈전도감·훈전도감·국장도감·산릉도감이 설치되었다. 영조 국장의 총호사와 도감 관원의 특징은 특별히 교체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조가 즉위하여 자신의 생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들과 정후겸 편에서 정치적 압박을 했던 이들을 불충으로 단죄하는 일이 국상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조의 국상은 기본적으로 『국조오례의』·『상례보편』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국장도감에서는 발인할 때 사용될 대여·견여·길의장·흉의장, 매안할 명기·복완 그리고 시책·애책·증백·증옥 등 의물이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타관서와의 협조가 긴밀하게 요구되었다. 서울의 경관 각사, 오군영 뿐만 아니라, 장지가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 감영과 경기도 여러 군현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국장도감에서 의물을 제작한 장인은 423명으로 경관 관서 소속 장인이 대부분이며, 간혹 사장(私匠)이 섞여 있었다.

발인할 때 동원된 인력은 차비관 395명, 여사군 7,143명, 부장·위장·충찬위 195명 총 명이 동원되었다. 여사군은 대부분 군인들이 차출되었으나, 대여의 앞과 뒤를 끄는 인력은 시민(市民)이었다. 또한 영조에게 은혜를 입은 개성과 제주 백성들이 참여하여 국왕의 죽음을 애도한 것은 애통의 공공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빈전도감은 영조 사망 이후 목욕에서 빈전 설치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제전(祭典), 목욕·습·대렴·재궁·성빈·찬궁 등에 관련된 일 그리고 성복 등을 관장하였다. 제전은 주로 대제의 감선(監膳)을 담당하였으며, 개명정(改銘旌)을 주관하였다. 성복에 있어서는 대전관·명부·궁방의 여관(女官) 그리고 대행대왕전과 중궁전 내관·사알·사약·반감의 상복 옷감을 직접 지급하였다. 재궁·찬궁 등의 제구를 관장하였으며, 별공작에서 빈전에 필요한 각종 기물들을 제작하였다. 기물 제작은 목수·소목장 등 108명의 장인이 담당하였다. 봉상시·내섬시·내자시는 실제 제전을 담당하였다.

빈전도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훈전도감은 반우일에서 종묘에 부묘하기까지 3년 동인 훈전의 일을 관장하였다. 빈전도감의 1방이 훈전도감의 1방과 소임이 같으므로, 훈전도감에는 1방이 설치되지 않았다. 영조의 훈전은 경희궁 태령전에 효명전이란 이름으로 정하였다. 훈전도감에서는 태령전을 정전으로 수리하고, 제기와 훈전에서 사용되는 기명 등을 관장하였다. 정전을 수리하고 조성하였던 장인은 233명이 동원되었다. 제기는 따로 주조하였지만, 그외의 기명은 공조·제용감·장흥고·사도시·선공감·군자감·광흥창·내자시·사용원·빈전 등에서 제공받았다.

산릉도감은 산릉의 위치를 정하고 산릉을 조성하는 일을 맡았다. 산릉의 위치는 총호사, 산릉도감 관원, 종친 그리고 지관 등이 동원되어 흥릉·건원릉·소령원 등 여러 장

소를 물색하여 정하였다. 산릉도감에는 삼물소(三物所)·조성소(造成所)·노야소(爐冶所)·대부석소(大浮石所)·보토소(補土所)·소부석소(小浮石所)·수석소(輸石所)·별공작·분장흥고·번와소(燔瓦所) 등을 두어서 능과 정자각·재실·비각 등 각종 건물을 조성하였다. 산릉도감에 동원된 인력은 310명의 장인과 1,290명의 모군(募軍)이었다.

사도감에서 사용하는 물력은 산릉도감에서 관장하여 각 도감에 분배하였다. 산릉도감에서 마련한 비용은 호조·병조·진휼청·금위영·어영청·훈련도감·사복시·사용원 그리고, 각 도의 감영과 병영 등지에서 제공받았는데, 총 쌀 5,700섬, 전 14,000냥, 목면 296동, 포 14동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산릉도감에서 사용한 비용은 쌀 4,960섬, 전 12,490냥, 목면 261동, 포 14동 등으로 총 비용의 약 88%에 해당되었다. 산릉도감은 동원된 인력의 급료 지급이 많았으나, 국장도감·빈전도감·훈전도감 등에서는 경관 각사와 경기감영 등지에서 인력과 물력을 감당하였다.